



齒科의학이 진짜로 독립한 학문으로서 전 문화한 시기는 베에르·포샤르(1678~1761년)의 활약과 때를 같이한다.

그당시 약제사도 가끔 임시 치과의 노릇을 하고 발치와 그밖의 일을 아울러 할수가 있었다.

제다르·두에 입각한 18세기의 회화

미국의학 도서관(베세스타) 소장

알림 : 139회 “外科의 일”은 “초기병원”의 착오임.

# 세 창 치과 기공소

752-5970, 778-8687

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-18 (금정빌딩 302)

대표 권혁문